

〈特別講演〉

同志社大学図書館司書課程・学校図書館司書教諭課程主催
延世大学校文科大学文献情報学科教授 文聖彬先生 講演会

韓国公共図書館におけるデジタルルーム あるいはデジタル資料室の活用化の実践

(한국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의 활용화 방안과 실천)

日時：2009年7月6日（月）5講時（16：45～18：15）

於：臨光館302番教室

通訳／翻訳：高永珍（コヨンジン 고영진）

宇治郷：通訳は文学研究科博士課程の韓国人留学生の高永珍さんをお願いしています。まず韓国の延世大学校文科大学文献情報学科教授であられる文聖彬（ムンソンビン 문성빈；以下カタカナ表記）先生より、一時間ほど話しをしていただきまして、その後質疑応答をしますので、学生の皆さんは質問を考えながらよく聞いてほしいです。最後に、感想文の提出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それでは先生よろしく願いいたします。

発表者（ムン・ソンビン）：はじめまして。挨拶は日本語でします。日本語は少しできるんですけど、発表は日本語より韓国語の方が良いと思って通訳さんをお願いしました。私はムン・ソンビンと申します。延世大学校の文献情報学科の教授ですけど、今は慶応義塾大学文学部の図書館・情報学専攻で研究員として訪問教授で1年間、今年の正月までいることになりました。今日は宇治郷先生と中村先生に招待して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同志社大学と延世大学校とは特別で親密な関係があります。特に尹東柱詩人が延世大学校の先輩ですから同志社とは「知り合い」という感じがします。それではよろしく願いいたします。

이제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발표강연을 준비한 것은 “한국의 공공도서관에 있는 디지털 자료실(디지털룸이라고도 한다)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전면의 파워포인트)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서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은, 사실상 한국의 정부에서는 10 년전부터 도서관 정보화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도서관 정보화 구축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 그중에 하나의 프로젝트가 디지털자료실을 공공도서관에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2001 년부터 2003 년까지 국가 프로젝트로 조성된 디지털자료실입니다.

작년 여름에 디지털 자료실이 설치된 후 5 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정부의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에게 프로젝트를 의뢰 해서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5 년전에 설치한 했는데 실지로 운영실태가 어떠한지 조사를 하고 그 분석결과를 향후 운영모델에 반영시키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공공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과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내외 관중별 디지털자료실의 모범사례를 조사하고 그 활성화 전략과 운영모델에 개발과정에 반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자료실에 관련된 문헌등의 조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자료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서 지역별 도서관 담당자

회의 및 권역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처음은 파워포인트 자료가 한국말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자로 바꿔서 작성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앞을 보면 내용을 다 이해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자료실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여러 연구자들이 지역별로 예를들어 서울 경기지역이나 성남시 또는 대구지역, 경남지역 등의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만족도와 그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왔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케팅전략을 도입하여 차별화된 정보서비스와 전자정보원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연구도 있습니다. 마케팅이라고 할때는 아마도 이용자를 고객으로 보는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이용자교육, 담당사서의 정보봉사, 디지털자료의 다양화, 홍보와 마케팅 등 디지털자료실 운영시 고려할 중요한 사항들을 연구한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제가 지도한 논문인데 인포메이션커먼스 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디지털자료실에 반영한 것입니다. 인포메이션커먼스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보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인포메이션커먼스는 나카무라선생님이 수업에서(웃음). 인포메이션커먼스는 디지털라이브러리, 도서관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마주치는 공간으로서 영어로는 윈스톱서비스라 하지만, 모든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공간을 인포메이션커먼스라고 합니다. 주로 디지털 도서관 및 자료실에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5 년전에 실행된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프로젝트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측면으로는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에 대응하는 정보환경의 조성이 필요했고 공공도서관으로서 지역문화교육 및 정보화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획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체가 도입된 이후

지역마다 재정의 차이도 많았기 때문에 전산인프라부족으로 지역정보화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도서관 장비,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장비의 노후화와 정보화 예산이 부족합니다.

기술적 측면을 보면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전 및 인터넷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지식정보자료가 보급되고 있고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헌정보의 디지털화 및 도서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공동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을 보면 다양한 정보매체에 대한 도서관의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관중별 도서관간 연계 및 공동이용기반조성 등 지식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정보화 및 문화사랑방으로서의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 351 개의 공공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였습니다. 1 차프로젝트에서는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네가지 유형, 특대형/대형/중형/소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고, 2 차 3 차 프로젝트에서는 두가지 유형을 추가하여서 농어촌형/분간형을 추가조성하였고 이외에도 지원품목에 장애우관련장비를 추가하여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규모별 참여 기관수 및 지원금액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표와 같습니다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3 차프로젝트의 특대형/대형/중소형/소형과 농어촌형/분간형을 지원한 사례를 분석한 표입니다.

1,2 차 프로젝트명 및 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는 공공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으로 1 년간 주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와 장비를 지원해 주었고 2 차에는 실질적으로 콘텐츠 라든지 디지털컨텐츠를 구축된 도서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3 차는 재평가를 통해서 계속적인 구축사업이

될 수 있도록 3 년간에 걸쳐서 약 500 억원(50 억엔)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추진평가를 보면 공공도서관에 대한 표준 모델의 적용으로 운영관리의 표준화 및 평균화를 모색하였고 인쇄매체중심에서 다양한 매체로 정보서비스의 확대 발전 및 정보자원의 생산 등 능동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결과로서 표준도서관리 시스템과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으로서 콜라스트와 콜리스넷의 보급 확산으로 도서관 정보전산망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 차 3 차 프로젝트부터는 농어촌 도서관의 참여와 장애우지원기기 및 설비도입으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거시적측면에서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영측면에서는 디지털자료실 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한 선행경험 및 지식의 부족, 디지털자료실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미흡하였고, 지역별로 공공도서관의 재정적 격차가 심하였습니다. 디지털자료실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정보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구축된 인프라에 비해 정보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이 미흡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콘텐츠의 개발전략 및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정보서비스의 확대 및 도서관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확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고 정보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도서관과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의 다각화 및 활성화가 필요하고, 디지털자료실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앞에 운영측면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측면에서도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상태에서 운영상태의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중에서 설문에 응답한 206 개 도서관을 중심으로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좌석수를 기준으로 봤을때 대부분 60 석이상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었고 규모면으로 봤을 때 중소규모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었습니다. 설비와 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디지털자료실이라 할때는

만드시 서버가 있어야 합니다. 서버를 통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배포하기 때문에, 서버가 평균 각 도서관마다 6.1 대이고 최대보유서버는 17 대, 최소는 한대 이것은 지역에 따른 재정의 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씨항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대부분 서버용 소프트웨어의 용도로서 DB 관리, 도서관리, 보안관리, 좌석예약 및 관례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았습니다. PC 용 소프트웨어로서는 자료제작을 위한 MS Office, 워드프로세서, 나모 웹에디터, 그리고 아도비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PC 의 보안, 압축, 좌석예약 및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들을 일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서버용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PC 용 소프트웨어에도 업그레이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방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있다는게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네트워크의 경우에도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의 네트워크 속도는 전체 공공도서관의 약 63%가 2 메가바이트에서 10 메가바이트 정도의 속도였고, 16%가 11 메가바이트에서 30 메가바이트 즉 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 속도에서 10 메가바이트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봤을 때 최근의 인터넷 환경에 비추볼 때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자료실의 콘텐츠는 시청각 자료가 49%정도, 전자자료가 41%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이외 마이크로자료와 장애인 자료가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의 그림의 문자들은 그림과 같이 되어 있어서 바꾸질 못 했습니다. 보유한 시청각 자료중에는 DVD 가 약 50%, CD-ROM 이 19% 비디오테잎이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용은 대부분 영화나 음악을 담고 있는 것 들이었습니다. 전자자료로는 E-book 이 74% 정도, 상용 DB 가 19%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E-learnig 자료가 4.4%정도 일부 보유하고 있지만 자체개발자료가 0.5%, E-journal 이 1% 등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서비스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이용자가 디지털자

료실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단순한 인터넷사용이 66%로 가장 많았고, 문서작업, 영화감상, E-learnig 자료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콘텐츠 측면에서는 시청각 자료가 49%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대부분은 일부만이 이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콘텐츠인 전자자료의 경우에도 약41%이상을 갖고 있지만 8.9%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부가 최초로 목적으로 한 공공도서관의 임무 사명을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과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디지털자료실 전체근무인력의 구성이 사서직이 37%, 전산직이 10%, 기타직이 52.4%를 구성하고 있고 사서직과 전산직이 구성하는 차지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7.6%입니다. 디지털자료실 근무인력과는 별도로 공공도서관의 전산을 관리하는 인력을 살펴보면 전산시스템을 사서직이 관리하는 경우가 52.6%, 전산직이 수행하는 경우는 3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을 보면 크게 운영, 유지보수, 콘텐츠 등 3개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07 년과 2008 년의 예산을 비교한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예산 가운데 운영 예산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지보수 예산, 그리고 콘텐츠 예산이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운영예산은 서버, PC, 네트워크, 기타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지난 2 년간의 예산변화를 살펴보면 서버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디지털자료실의 운영을 맡고 있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순위를 보면 제일 위가 업무의 전문성 부족, 다음으로 자료실 지원인력부족이라든지 노화된 전산장비, 자료실 운영인력부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쉽게도 마지막 순위에 기관장(도서관장)의 인식부족이라는 항목도 포함되었습니다. 주로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공무원들이 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서관정보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고 처음부터 공무원에서 시작하여 관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이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의 국회도서관의 관장도 문헌정보학을 전공으로 한 사람이 많고 있지 않습니다. 정당에서 추천을 받아 맡는 하나의 장관같은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자료실 이용자들의 불만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면 낮은 전산장비, 네트워크 속도부족, 이용 좌석 부족 등의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순위를 보시면 직원의 서비스에서도 불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의 실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노후한 전산장비는 개선이 시급합니다. 최초로 설치된 이후 전산장비의 업그레이드를 시행한 공공도서관이 드문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용현안이 최대 5년정도인 서버의 업그레이드 혹은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2003년 이전에 도입된 서버 중에 27%이상이 이미 6년에서 7년이상 노후화 된 상황입니다. 최근 일반가정에서 국내인터넷 이용자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률이 99%이상입니다. 이런상황을 가만하여 볼 때 공공도서관의 전산망의 고속화는 물론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한국에서 가정에서 설치된 인터넷의 속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100 메가바이트입니다. 노후한 네트워크 장비의 교체 및 업그레이드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초고속 인터넷망의 도입과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예산상의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인력과 예산면을 살펴보면 디지털자료실에는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산직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스템관리 인력은 사서직이 52.6%, 전산직이 30.2%로 사서직이 전산직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에 응한 206개 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에 사서직만 있는 경우가 41.7%, 전산직만 있는 경우가 12.1%, 사서직과 전산직이 모두 있는 경우가 1.0%인 반면 두 직공이 모두 없는 경우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1%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자료실 근무인력으로 사서직이 있는 경우와 없는 도서관의 이용률을 통계패키지를 통해 T 검정을 해 보았습니다. 결과로 양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사서직이 있는 경우

에 이용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7 년과 2008 년의 예산을 비교한 결과 전년 대비 금년에 예산이 증가한 도서관이 59.7%, 동일하게 유지된 도서관이 12%, 그리고 감소한 도서관이 28.2%였습니다.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규모 측면에선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내용측면에서는 운영예산과 유지보수 예산에 비하여 콘텐츠 예산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표에 나타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운영예산은 증가 했지만 콘텐츠쪽의 예산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핵심은 콘텐츠입니다. 디지털자료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단순히 양적인 증가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자료실의 정보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하고, 특히 콘텐츠 측면의 예산증액은 바람직한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콘텐츠 예산의 증액은 다른 부분을 감소시키면서 증가 시키는게 아니라 기존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증액 또는 추가 편성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다음으로 디지털자료실의 공간배치와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자료실의 공간 배치 및 활용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크게 세가지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첫번째로 디지털자료실의 콘텐츠 소장 및 이용을 위한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디지털자료실의 주요 콘텐츠로서 시청각자료의 양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위한 공간이 확장되어야 함은 물론, 향후 디지털자료실의 기능 다변화 측면에서 다른 공간에 있던 기존의 장서가 디지털자료실로 편입되는 경우도 대비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로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의 공간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 디지털자료실은 인터넷 정보검색, 정보제작, 멀티미디어 이용 등의 코너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 측면에서 이러한 구분은 거의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이용을 위한 특정코너의 PC 사양이 좀 더 높다는 이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즉 관리 중심의 배치보다는 개인/그룹별 정보활용 및 교육을 위한 공간, 간단한 식음료와 쉼터를 제공하는 휴식 공간 등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세번째는 웹부킹 등 좌석예약

시스템을 개선 및 확장하여 디지털자료실의 재배치 된 공간들에 대한 효율적인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공간의 재배치를 통하여 개인 또는 소규모 그룹별로 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공간의 재배치는 디지털자료실을 사서와 이용자, 그리고 이용자와 이용자 간 온라인/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하고 이를 통한 정보 공유 및 정보의 공동제작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좌석예약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개인별 예약 이외에 공동작업을 위한 2~3 인 또는 5 인용 좌석을 마련하고 예약기능을 추가 해야 합니다. 각 좌석에 사용시간을 필요한 작업내용에 따라 융통성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유비쿼터스환경의 도입과 함께 휴대폰, PDA 등을 통한 모바일 좌석 예약 또는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비쿼터스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가 어디에 가있던지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의 위치 측면에서 이용자의 접근성과 정보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자료실의 위치를 공공도서관의 일차적인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로 디지털자료실과 인접한 공간은 상호간에 연계된 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즉 디지털자료실의 정보서비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참고정보실, 컴퓨터교육실 등을 인접한 곳에 배치하여,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용 서비스의 고도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질적 이용 서비스의 향상.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이나 여가차원의 이용률은 아주 높은 반면 문서작성이나 교육 등 적극적인 정보활용 차원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초기 디지털자료실의 주된 목적은 일차적으로 일반 대중의 정보접근 기회를 넓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 정보접근에

기초한 정보활용 또는 정보제작 등 정보서비스의 고도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합니다. 한편 가정에서의 인터넷 이용 목적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80% 이상이 자료 및 정보습득, 또는 음악, 게임, 동영상 등 여가활동, 이메일, 채팅 등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은 자료 및 정보 습득 부분을 보다 고도화한 측면에서 질적 이용의 정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전산장비 측면의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음으로 여러 소프트웨어 이용 방법 및 정보활용 교육을 위한 다양한 경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계데이터에 기초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도서관과 그렇지 않은 도서관을 비교해 봤을 때 이용률에 있어서 양자간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의 질적 이용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용자 및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에 기초한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둘째, 이용자의 정보활용을 고도화하기 위한 장비 및 교육서비스의 개선 및 보완

셋째, 디지털자료실 근무인력의 계속교육

콘텐츠 개선과 보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각자료의 지속적인 유지와 구입이 필요하고, 이런 시청각자료는 디지털자료실 공간 내에서 주로 이용되는 콘텐츠로 보다 실제적인 활성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이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향후 인터넷티비, 방송국 아카이브 등을 통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리밍서비스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전부 모르시나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는 것도 앞으로 좋은 연구가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선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상당히 발전해 있어요. 일본에도 인터넷폰/전화가 있나요? 한국은 일반가정에도 많이 보급돼있습니다. 지금 가정내에서도 IP 폰이나 IPTV 를 사용하시는 분은 계신가요? IPTV 를 통해서 스테리밍서비스라는 것은 본인이 보지 못 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보고자 하는 비디오를 티비를 보면서 지나간 프로그램까지도 자기가 언제든지 VOD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가의 시청각 자료를 개별적으로 도서관에서 구입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우는 도서관의 협력이나 지역대표 도서관을 통해서 공동구입 공동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자료나 장애우 자료의 경우에는 각각의 특성에 따른 별도의 접근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디지털자료실을 위한 통합운영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측면에서 통합운영 및 관리를 위한 통합운영체계의 구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네가지는 앞에서 나왔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자료실의 이용이 질적 이용이 아닌 양적 이용에 머무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사서직이 본연의 업무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보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그리고 PC 및 주변기기 문제 등의 업무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제도 및 조직구조에 대해서는 간단히 한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지역대표도서관을 16 개를 구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이 통합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을 재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자료실의 기능 다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다양한 유형의 원자료 및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정보의 제작 및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의 온라인/오프라인 커뮤니티 형성 및 정보공유 활성화,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은 Library2.0 기술을 활용하여 블로그, SNS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타 부서와의 통합 및 연계를 통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제공을 해주어야 합니다. 넷째로서 공공도서관의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게이트웨이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 다변화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디지털자료실의 독립모형을 제안했습니다. 입구의 오른쪽에 휴식존이 있고 엔터테인먼트공간, 개인별 작업공간과 업무공간 및 안내데스크, 그룹별 작업공간, 모바일존. 그리고 통합모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도서관 공간과 통합된 모형으로서 참

고 정보실, 컴퓨터교육실, 센터에 디지털자료실이 위치합니다.

결론은 앞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여러분에게 그림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서울 정독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과천의 과학정보도서관의 모습(디지털자료실)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입니다. 동대문정보도서관의 사진입니다.

이런것들이 지난 5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구축된 디지털자료실입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사진이 있지만 해외에는 디지털자료실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참고로 봐 주세요. 지금 시간이 5분정도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해주시고, 질문이 없으면 지금 동영상이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남는 분들은 계속 틀어 놓을테니까 휴식시간에 보고 가세요. 이것은 연세대학교에 디지털자료실의 기능을 하고 있는 학술정보관인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네요. 5분정도 상영입니다.

質問 文学部国文学科三回生の梅田といいます。デジタル情報、デジタル資料についてですが、インターネットの情報も含まれるのでしょうか。

(문과대학 국문학과 삼학년 우메다입니다. 디지털정보 디지털자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터넷의 정보도 포함되는 겁니까?)

에 인터넷 정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산재해 있는 정보들도 필요에 따라 공공도서관에서 수집해서 그것을 그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공제작해서 자체개발 해서 콘텐츠화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あの、配架の問題ですけれども、デジタル資料と図書資料を分けて配架するのですか。一緒に配架するんですか。

(그럼, 자료의 배치에 대해 묻고 싶은데요. 디지털자료실과 도서자료는 구분하여 배치되나요, 아니면 같이 배치되나요?)

디지털 자료실의 역할이 독립적으로 활용되고 보관되도록 만든 공간이 디지털

털자료실입니다.

最後ですけど、ワンストップ・サービスの説明をもう一度お願いします。
(마지막으로 원스톱서비스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스톱서비스는 이용자가 도서관에 들어가면 한 곳에서 본인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인포메이션커먼스라는 공간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은 좀 더 큰 국가국립중앙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의 개념이고, 공공도서관은 조그마하기 때문에 디지털자료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農漁村型図書館」とはどういう図書館のことを意味するんですか。
(‘농어촌형 도서관’이라면 어떤 형태의 도서관을 가르키나요?)

농어촌 가운데서도 한국에서도 상당히 낙후된 벽고지 제정적으로 지방에서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안 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원이 힘든 곳을 특별히 그곳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만들어진 도서관을 말합니다.

農漁村の中には韓国でもかなり立ち遅れた地域が存在し、そこは財政的に予算が不足し、遠く離れていて支援が難しいところを対象にその利用者のため支援するように作られた図書館を言います。

中村：時間がもうなくなってしまったのですが、私のイメージでは、韓国はネットカフェがいたるところにあるとかテレビで見たこともあり、ネットが盛んなイメージがあります。お金を払っていくネットカフェと図書館が行う電子情報のサービスがどういうふうに差別化をしていくのかを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はないかとかを考えさせられました。この後、懇親会がありますので良かったら学生さんも積極的に参加していただき、その場で引き続きお話し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강연회 시간은 다 됐지만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한국의 정보화에 대한 인상은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PC 방의 숫자 등 인터넷환경이 발전되어 있다고 봅니다. 돈을 지불하며 가는 PC 방과 도서관에서 전자정보서비스와 어떻게 차별화를 해나갈 것인지 궁금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강연회가 끝나고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으니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그 자릴 빌려 강연회때 못한 이야기를 여쭙보세요.)

ムン・ソンビン：延世大学校は韓国で一番有名な私立大学で、この大学の図書館は大変最新のデジタルライブラリ・コンテンツを入れて作った図書館です。

(動画鑑賞)

以上です。延世大学校のホーム・ページや図書館のホーム・ページでも見られます。

마지막으로 도서관정보학과에 관심이 있으신 분? 나중에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제가 발표한 내용이지만 한국에서는 사서라는 개념보다도 즉 전통적인 도서관 교육보다도 전산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졸업하기 전에 관련과목을 많이 습득해서 사서지만 전산직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거나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답장도 드리고 소개도 시켜드리겠습니다. 또 한국에 방문해서 연세대학에 오시면 찾아와 주세요.

저도 한국에서 일본어를 2~3 년 매일 아침에 공부해서 어학당을 졸업하고 올해 게이오대학에 방문교수로 오게 됐는데, 여러분도 한국어나 영어를 공부하셔서 연세대에 유학을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은 수업의 40%는 영어로 하기때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문헌정보학과는 제가 프라이드로 여기는데 한국에서 제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

셔도 좋은 커리큘럼을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 성공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실패라기보다는 저는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려고 노력하다보면 실패를 할 수 있지만 성공하려고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포기한 사람입니다.

宇治郷：本日は長い間、韓国の図書館情報学の最先端の話をお聞かせ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だいろいろ質問したい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が、今日のお話をステップにして日本でも公共図書館、大学図書館でこういうデジタル資料室・情報資料室というものを研究し、どうすれば構築できるかを研究することが必要かと思います。最後にもう一度拍手をしてお別れにしたいと思います。

〈特別講演〉

韓国公共図書館におけるデジタルルーム あるいはデジタル資料室の活用化の実践

(한국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의 활용화 방안과 실천)

ムンソンビン
文聖彬 (문성빈; 以下カタカナ表記)

宇治郷：通訳は文学研究科博士課程の韓国人留学生の高永珍さんをお願いしています。まず韓国の延世大学校文科大学文献情報学科教授であられるムン・ソンビン先生より、一時間ほど話しをしていただきまして、その後質疑応答をしますので、学生の皆さんは質問を考えながらよく聞いてほしいです。最後に、感想文の提出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それでは先生よろしくお願いたします。

発表者 (ムン・ソンビン)：はじめまして。挨拶は日本語でします。日本語は少しできるんですけど、発表は日本語より韓国語の方が良いと思って通訳さんをお願いしました。私はムン・ソンビンと申します。延世大学校の文献情報学科の教授ですけど、今は慶応義塾大学文学部の図書館・情報学専攻で研究員として訪問教授で1年間、今年の正月までいることになりました。今日は宇治郷先生と中村先生に招待して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同志社大学と延世大学校とは特別で親密な関係があります。特に尹東柱詩人が延世大学校の先輩ですから同志社とは「知り合い」という感じがします。それではよろしくお願いたします。

それでは始めたいと思います。本日の講演内容ですがけれども、「韓国公共図書館におけるデジタルルーム或いはデジタル資料室の活用化の実践」について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目次の詳しい内容は日本語になっておりますので省略させていただきます。

早速序論に移りたいと思います。

研究の必要性和目的について述べます。韓国の政府は10年前から図書館の情報化にかなり関心を持っていました。その一貫として図書館情報化の基盤を築くための行政として様々なプロジェクトを実施しました。その一つがデジタル資料室を公共図書館に設置することでした。

このデジタル資料室は、2001年から2003年の間国家的プロジェクトとして助成されたものです。

デジタル資料室が設置されてから5年が経った時点だった去年の夏、韓国政府の文化観光部から今回のプロジェクトの依頼があつて、本日はその結果を発表することになります。

莫大な予算を費やして設置されたが、実際の運営実態はどうかを調査し、その分析結果を今後の運営に反映させることが研究の目標です。

研究の範囲と方法は次のようなものです。

既に助成された公共図書館のデジタル資料室の全般的な運営実態についての調査と分析を行いました。国内・外の館種別のデジタル資料室の模範事例について調査し、活性化戦略と運営モデルの開発過程に反映しました。そしてデジタル資料室に関する文献を調査し分析しました。最後にデジタル資料室の問題点及びその改善方法のため地域別図書館担当者会議及び圏域別の現地調査を行いました。

最初はパワーポイントの資料も韓国語だけだったのですが、話だけでは内容が分りづらいと思い、旧漢字ではありますが、漢字に直してきました。発

表だけではなく、前に映されているものを参考にすれば理解に役立つと思います。

デジタル資料室についての関心は常に高く、主に地域別の公共図書館の利用者の満足度とその要因に関する研究は様々に行なわれてきました。特に最後に言及された論文は、公共図書館のデジタル資料室の活性化のため、マーケティング戦略の投入した差別化された情報サービスや電子情報源の開発の必要性についての研究で注目されます。マーケティングという言葉を使っていることから、図書館を利用する者に対して顧客という立場で論じ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

先ほど紹介したように韓国は子供図書館が発達しておりまして、その子供図書館のデジタル資料室の事例として、教育を重んじる視野があり、利用者教育、担当司書の情報奉仕、デジタル資料室の多様化、広告やマーケティングなどのデジタル資料室運営の際、重要な項目を研究した論文もあります。

最後の論文ですが、私が指導した論文で「インフォメーション・commons」という概念を投入してデジタル資料室へ反映させたものです。インフォメーション・commonsという概念を始めて耳にする方が多いと思いますが、ご存知の方は手を挙げてもらいますか。中村先生の授業などで使われ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笑) インフォメーション・commonsとは、タイトルにも使われておりますけど、デジタル資料室という言葉さえもお聞きになっていない方もおられると思いますが、デジタルライブラリ、デジタル情報室(資料室)に通じる概念でありまして、図書館に入って最初に接するところすべてのサービスを受けられる場を設けているということ、インフォメーション・commonsまたはデジタルライブラリのワンストップ・サービスと言います。

それでは5年前に開始された公共図書館におけるデジタル資料室のプロジェクトの背景について述べてみたいと思います。社会的な側面からみますと、

知識情報社会の到来に応じて情報環境を育成する必要が浮き彫りにされたことが挙げられます。公共図書館が地域文化教育や情報化拠点としての位置を獲得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たこととも繋がります。地方自治体の関与によって、地域ごとに運営できる予算が違ったこともあり、電算インフラの不足から地域情報化の格差問題が深刻になりました。特に図書館の装備が高価であったため、装備の老化と情報化予算の不足も問題でした。

技術的な面をみてみれば、情報通信の急激な発展とインターネット利用者の急増の問題が挙げられます。多種多様な形態のデジタル知識情報資料が普及し、図書館が所蔵している文献情報のデジタル化及び図書管理システムの効率的な共同活用の必要性が浮かび上がりました。

プロジェクトの目的をみますと、多様な情報媒体を通じた図書館の情報サービスの拡大と、館種別図書館間の連携及び共同利用基盤助成などの知識インフラを拡充させ、地域情報化及び文化の広場としての図書館の役割を強化させることでした。

プロジェクトの内容を簡略にみますと、2001年から2003年までの3年間、全体として351の公共図書館にデジタル資料室を設置しました。第一次プロジェクトでは、全国の公共図書館を四つの類型（特大型・大型・中型・小型）に分け支援をしました。第二・三次のプロジェクトでは、農漁村型を追加し、支援品目としても身体障害者関連装備を追加し情報疎外層に対する支援を強化しました。規模別の参加機関数などは前の表に映されていますが、重要な問題ではないので次に移りたいと思います。

現在映されているものは、第三次プロジェクトの特大型・大型・中型・小型と農漁村型とのデジタル資料室の規模や予算、基準などを示した表であります。

次の頁は、プロジェクト名と進行状況を現しております。第一次では、デ

デジタル資料室の構築事業として約1年間を費やし、構築のためのハードウェアと装備への支援を行いました。第二次では、実質的なデジタルコンテンツなどが図書館に構築できるように提供支援し、第三次では、再評価を通じて継続的な構築事業として成立できるようにし、3年間をかけて約5百億ウォン（50億円）を支援しました。

推進評価をみると、公共図書館に対する標準モデルの適用により運営管理の標準化及び平均化を模索し、印刷媒体中心から多様な媒体へと情報サービスの拡大発展及び情報資源の生産など能動的な情報サービスのための基盤を構築できたと思います。その結果として、図書館の情報電算網の基盤として、標準図書管理及び国家資料共同目録システムの普及と拡散を挙げられます。第二・三次のプロジェクトからは農村・漁村の図書館の参加と身体障害者関係機器及び設備の投入で情報疎外階層に対する配慮を具体化しました。マクロな側面で統合運営システムを構築しました。

しかしまだ残された問題はあります。運営面では、デジタル資料室システムの運営管理のための先行経験の不足や知識の不足を挙げられます。デジタル資料室の安定的な維持補修及びアップグレードのための長期的な対策が十分ではなかったし、地域別で公共図書館の財政的な格差が激しかったのです。デジタル資料室のシステムの円滑な運用のための専門人力の確保も必要だったのです。

情報サービスの側面からは、構築されたインフラより情報サービスやその水準もまた十分ではなかったと思います。持続的なコンテンツの開発戦略と支援が必要であると思います。情報サービスの拡大及び図書館のためのシステムの改善と拡張も対策が必要であったし、情報サービスのための具体的な計画と戦略が必要でした。図書館とネットワークを通じた協力の多角化及び活性化が必要であったことや、デジタル資料室の情報サービスでも、際ほど運営側面でも述べたように、同じくサービス側面でも専門人力の確保が必要だったと指摘できます。

このような問題点を把握した上で、運営の実態を調査してみました。

全国にある公共図書館のデジタル資料室の運営実態を把握するため、アンケートを配布し、その中アンケートに応じた206の図書館を中心に調査と分析を行いました。座席数を基準に考え凡そ60席以上の座席を保有していることと、規模面では中小規模で維持され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設備と装備の現状を考えれば、デジタル資料室という点必ずサーバが必要です。サーバをもって資料を管理し配布できるためです。平均的に各図書館が6.1台のサーバを持ち、最大保有サーバとしては17台、最少としては1台を持っていました。これは地域の財政による相違であると思います。PCの項目は省略いたします。

ソフトウェアの場合、おおよそサーバ用ソフトウェアの費用として、データ・ベース(DB)管理、図書管理、保安管理及び座席予約のためのソフトウェアが最も多かったのです。PC用のソフトウェアとしては、資料製作用のMS Office、ワープロ、ウェブエディターやアドビなどが最も多く、その次がPCのセキュリティ、圧縮、座席予約及び管理のためのソフトを一部保有しておりました。サーバ用のソフトだけではなく、PC用のソフトもアップグレードがあまり行なわれていないのが現状でした。特にソフトの場合、皆さんご承知のように、早くアップグレードが必要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十分ではなかっ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ネットワークの場合でも、公共図書館のデジタル資料室のネットワークの速度は、全体公共図書館の約63%が2メガバイトから10メガバイトの速度でしたし、16%が11メガバイトから30メガバイト、つまり公共図書館のネットワークの速度は10メガバイトが大部分を示していることからみて、最近のインターネット環境を考えてみれば至急改善が必要です。

コンテンツの現状を考えてみます。デジタル資料室のコンテンツは視聴覚資料が49%で、電子資料が41%を占めており、それ以外のマイクロ資料や身体障害者用の資料が少量を占めております。pptの資料では絵として処理しておりまして韓国語のままになっております。

保有している視聴覚資料の中でDVDが約50%、CD-ROMが19%、ビデ

オが12%を占めており、内容の大半が映画や音楽でありました。電子資料としては、E-book が74%、常用 DB が19%を占め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それ以外に、E-learning 資料が4.4%ほど一部であるが保有が確認でき、0.5%が自体開発資料で、E-journal は1%ほどで少ない状態といえます。

続いて利用サービスの現状を考えてみます。公共図書館の利用者がデジタル資料室をどういう目的で使用しているかを調査しました。その結果をみれば、単純なネットの利用が66%で最も多く、文章作成、映画鑑賞、E-learning 資料の順の割合でした。コンテンツの面からは視聴覚資料が49%で最も多く占め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利用者のほとんどはその一部しか利用できておりませんでした。重要なコンテンツである電子資料の場合も約41%は保有しているが、その利用は8.9%に留まっています。こういう結果から考えれば、根本的に政府が最初に掲げた公共図書館の目的や任務はちゃんと果たされていないと思われれます。

職員と予算の現状では、デジタル資料室の全体勤務人力の構成として、司書職が37%、電算職が10%、その他の職が52.4%を占め、司書職と電算職との割合が半分に近い47.6%でありました。デジタル資料室の勤務人力とは別に、公共図書館の電算を管理する人力を調べてみると、電算システムを司書職が管理する場合が52.6%で、電算職が直接管理する場合は30.2%に過ぎなかったのです。予算からみると、大きく運営、維持補修、コンテンツの三つの部分で分けることが出来ますが、2007年と2008年の予算を比較した表で見られているように、全体予算の中、運営予算が一番多く、次に維持補修の予算、そしてコンテンツ予算が一番少なかったことが示されています。この中で、運営予算としてサーバ、PC、ネットワーク、その他などに分けられますが、最近の2年間の予算変化からみると、サーバの予算が一番増加したことが見てとれます。

その他の項目として、デジタル資料室の運営を担当している管理者を対象に最も大きい問題点であると思うことについて調べてみました。順位をみて

みますと、一番上位が業務の専門性の不足、その次に資料室の支援人力の不足、老化した電算装備、資料室の運営人力の不足の順になっていました。残念ではありますが、最後の順位として機関長（図書館長）の認識の不足という項目も含まれています。公共図書館の館長は主に公務員からなることが多く、図書館情報学を専攻していなくても、最初は公務員から始まって館長の職業をこなすケースも多々あります。このような問題は大きいと思います。また一つの例として、韓国の国会図書館の館長も、文献情報学を専攻していない人が勤めています。政党の推薦をもらって長官のようなポジションの一つとしてみなされているのが現状です。

そしてデジタル資料室の利用者の不満事項について調べてみましょう。スクリーンの表を見てみますと、低いレベルの電算装備、ネットワークの速度の遅さ、利用座席の不満などが順位に表れました。そして最後に職員のサービスにも不満足していることもわかります。

それでは、現在まで調査した資料を基に、公共図書館デジタル資料室の実践活性化方法について考察してみましょう。なによりも老化した電算装備の改善は最優先であります。最初に設置された以後、電算装備のアップグレードが実施された公共図書館の方が稀な現状から、一般的な耐用年数が最大5年程度のサーバのアップグレードや交換がいち早く必要です。2003年以前に投入されたサーバの中、27%以上がすでに6年から7年以上経過し、老化が進んでいる状態です。最近韓国の一般家庭で使用されるインターネットの回線は、最高速でその利用率も99%に達していることを考えると、公共図書館の電算網の高速化はもちろん安定化などのための多角的な努力を注がなければいけません。参考のため申し上げますが、韓国の家庭に設置されたインターネットの速度は約100メガバイトです。老化したネットワーク装備の交代及びアップグレードが優先的に進めなければいけないし、最高速インターネットの投入と安定的な維持のための予算が同時に必要です。

人力と予算の面からみれば、デジタル資料室にはシステムを専門的に運営

できる電算職が最も不足している状態であります。システム管理の人力は、司書職が52.6%、電算職が30.2%であり、司書職が電算職の役割を担当しているケースがもっと多かったことが分かります。アンケートに応じた206の図書館のデジタル資料室に、司書職だけがいる場合が41.7%、電算職だけがいる場合が12.1%、司書職と電算職が両方いる場合は1.0%であったのに対して両方ともいない場合は半分に近い45.1%にものぼりました。こういう側面からデジタル資料室の勤務人力として司書職がいる場合といない場合の図書館利用率を、統計ソフトを利用し T 検定を行いました。結果として両者間の意味ある差も見え、司書職がいる場合の方が、利用率が高かっ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2007年と2008年の予算を比べた結果も、前年に対比し今年度の予算が増加した図書館が59.7%、同額で維持された図書館が12%、そして減額した図書館が28.2%でありました。一般的また全般的な規模の側面では、かなりの増加を見せたが、内容の側面では運営予算と維持補修の予算に比べコンテンツの予算が相対的にかなり少ない予算が編成されていました。今申し上げた内容は、前の表に記しておりますのでご参照してください。一般的に運営予算は増加しましたが、コンテンツの方の予算はほぼ変わっていません。皆さんもご承知のとおり、図書館の情報サービスの核心はコンテンツであります。デジタル資料室の活性化のためには、基本的には安定的な予算の確保が大切ではありますが、単純に量的な増加に止まらず質的な側面の改善も共に行わ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あります。このような側面からデジタル資料室の情報サービスの高度化のための政策的な支援がなければならないし、特にコンテンツの側面の予算増額が今後の試みとして必要です。もちろんコンテンツ予算の増額が他を減少させてその予算を確保するより既存の予算をそのまま維持させながら増額や追加編成の方法をとっ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

続いてデジタル資料室の空間配置と位置について述べたいと思います。デジタル資料室の空間配置及び活用面では長期的に大きく三つの側面での改善が必要であっ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はじめにデジタル資料室のコンテンツの所蔵及び利用のための空間が追加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です。現在デ

デジタル資料室の主なコンテンツである視聴覚資料の量が増加しており、そのための空間の拡張が必要であることは無論、今後のデジタル資料室の機能多様化の側面からも、他の空間にあった既存の蔵書がデジタル資料室に編入されるケースにも対応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二番目に公共図書館のデジタル資料室の空間の再配置が必要です。現在のデジタル資料室はインターネット情報検索、情報制作、マルチメディア利用などのコーナーで区分されて運営されています。しかし、利用者の立場から考えれば、このような区切りは無意味であると思われます。マルチメディア利用のための特定のコーナーのPCの仕様が他より高いということ以外に違いが見えません。即ち管理中心の配置よりは、個人・グループ別の情報活用及び教育のための空間、簡単な飲食ができる休憩空間などの利用者側を重視した空間の再配置が必要でしょう。

三番目にウェブ上の予約など座席予約システムの改善及び拡張から、デジタル資料室の再配置された空間における効率的な再配置も必要であります。空間の再配置を通じて、個人または小グループ別に座席を利用できることが効率的な対案になれますし、また利用者と利用者間のオン・オフラインのコミュニティの形成に貢献でき、それを基にした情報共有及び情報の共同制作空間としての役割を果たせる基盤が作れると思います。それに加え、現在運営されている公共図書館の座席予約システムを効果的なものへの改善も必要であり、個人別の予約以外にも共同作業のための2～3人または5人用の座席を設け、その予約機能も追加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各座席の利用時間も必要な作業内容により調整できるシステムに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またユビキタス環境の投入と共に携帯、PDAなどを使ってのモバイル座席予約や延長などが可能にする必要もあります。ここでいうユビキタスというのは、利用者がどこであろうが本人が求めている情報を提供できる環境を指しております。

続いて公共図書館のデジタル資料室の位置の面では、利用者の接近性と情報サービスの連携性を高めるため、大きく二つの改善案が考えられます。その最初の改善案としては、利用者の接近性を高めるためデジタル資料室の位

置を公共図書館の一次的なゲートウェイになれる場所に設置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二番目としては、デジタル資料室と隣接している空間は相互間に連携できるように、また情報サービスが提供できるように配置し、即ちデジタル資料室の情報サービスと密接な連関している参考情報室、パソコン教育室などを隣接した場所に配置し、相互間にシナジー効果が発揮でき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利用サービスの高度化について述べてみます。最初に利用サービスの質的な向上が挙げられます。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た情報接近や単純利用率は高い反面、文書作成や教育などの積極的な情報活用としての利用率は相対的に低かったです。初期デジタル資料室の目的が、一次的に大衆の情報接近のチャンスの拡散による情報格差の解消のための情報サービスの基盤作りであったなら、5年が経った現在の時点では、情報接近に基づいた情報活用及び情報作成などの情報サービスの高度化の次元での接近が必要です。一方、家庭でのインターネットの利用目的を調べた結果、利用者の80%以上が資料及び情報習得、または音楽、ゲーム、動画などの余暇活動、Eメール、チャットなど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ための利用であっ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しかし、公共図書館の資料及び情報習得部分こそ、より高度化した高質的な利用に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そのため優先的に電算設備の改善及び補完が必要で、その後様々なソフトウェアの利用方法及び情報活用教育などの多くの教育が行なわ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統計データから教育プログラムがある図書館とそうではない図書館を比べてみれば、利用者面での差はあることがわかります。

具体的に公共図書館のデジタル資料室の質的利用に対する活性化のための方法を挙げますと、一番目は、利用者及び利用者の要求に対する定期的な調査によるサービスの開発と提供であります。二番目は、利用者の情報活用を高度化するための装備や教育サービスの改善と補完、最後にデジタル資料室の勤務人力の継続的な教育でしょう。

コンテンツの改善と補完について述べます。大きく3つの方法での改善及び補完を進める必要があります。視聴覚資料の持続的な維持や購入、またこのような視聴覚資料こそデジタル資料室の中で主に利用されるコンテンツとしてより実際に活性戦略の対象になれます。しかし、個別の図書館の次元では、このようなコンテンツを継続的に購入することが不可能で、今後インターネットテレビ、放送局のアーカイブなどを通じてストリーミング・サービスを積極的に模索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ストリーミング・サービスをご存知でない方は？そうですか。韓国と日本を比較することも今後の期待できる研究でしょうね。韓国ではインターネットの技術がかなり発展を遂げました。日本にもインターネット電話があると思いますが、韓国では一般家庭にもその普及が広く見られます。現在、家庭内でIPhoneやIPテレビをお使いになっている方いらっしゃいますか？IPテレビを使いストリーミング・サービスを利用すると、見逃した放送を見たい時にVODサービスでいつでも見る事ができます。そのため、高価の視聴覚資料を個別に図書館で購入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が、そういう場合、図書館間の協力や地域代表図書館を通じて共同購入し、共同利用することもできるでしょう。またマイクロ資料や身体障害者用の資料などは各自特性を生かせる別途の接近方法が必要でしょう。

それでは次にデジタル資料室用の統合運営体系構築の必要性について述べたいと思います。コンテンツの側面から統合運営及び管理のための統合運営体系の構築が現実的に必要であることは述べました。ここで言及した四つの方法の中、三つは先述したので省略し、最後の四番目を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デジタル資料室の利用が質的な利用ではない量的な利用に留まっている一番の原因が、司書職の本来の業務である利用者へのサービスよりシステムの運営及び維持補修、そしてPCや周辺機器問題に対する業務に相当の時間や努力が使われるからであります。

法制度や組織構造についても簡単に申し上げますと、地域代表図書館を16箇所を設置構築し、それが統合運営管理の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です。その

ため法律でも、関連法を制定し地域代表図書館がその役割ができるように政府も支援をしているのが現状です。具体的な内容は省きます。

最後にデジタル資料室の機能多様化について述べます。最初に挙げられることは、多様な類型の原資料及び専用アプリケーションを活用した情報の作成や教育が必要でしょう。続いて公共図書館のオン・オフラインのコミュニティ形成及び情報共有の活性化のため、公共図書館のデジタル資料室はLibrary2.0の技術を活用したブログ、SNS サービスなどを提供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その後他部署との連携や統合を通じた多様なコンテンツの開発や提供が必要です。そして公共図書館のワンストップ・サービスのため、ゲートウェイの機能を提供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このような機能の多様化を効果的に実行するため、デジタル資料室の独立モデルを提案しました。入り口の右側に休憩スペースを設け、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空間、個人別作業空間及び業務空間、案内デスク、グループ作業空間、モバイルゾーン、そして統合模型が考えられると思います。既存の図書館空間と統合した模型としては、参考資料室、パソコン教育室、その真ん中にデジタル資料室が配置されます。

結論は既に述べましたので、省略いたしまして、皆さんに写真を見ていただきます。順番に韓国、ソウルのチョンドク（正誼）図書館のデジタル資料室、京畿道の果川科学情報図書館のデジタル資料室、ノウォン（盧原）情報図書館、ソウルの東大門情報図書館の様子です。以上などのものが、この5年間政府の支援を受け構築されたデジタル資料室です。海外のケースの写真もありますが、海外にはデジタル資料室という概念がありません。ご参考だけに止めたいと思います。後5分ほどの時間が残っていると思いますが、もし質問があればお願いします。質問がなければ、動画を一つ見せたいと思いますが、いかがですか。前に映しておくので、休憩時間までになると思いますが、見てほしいです。これは延世大学校にあるデジタル資料室の機能をしている学術情報館という建物で、その紹介動画で、約5分の上映になります。

〈質疑応答〉

質問 文学部国文学科三回生の梅田といます。デジタル情報、デジタル資料についてですが、インターネットの情報も含まれるのでしょうか。

ムン・ソンビン先生： はい、インターネットの情報も含まれています。インターネットに散在している情報も必要に応じては、公共図書館で収集してそのままアップするのではなく、加工製作して自己開発したコンテンツにすると考えていただくとよいかと思います。

梅田：あの、配架の問題ですけれども、デジタル資料と図書資料を分けて配架するのですか。一緒に配架するのですか。

ムン・ソンビン先生： デジタル資料室の役割が独立的に活用され、保管されるように作られた空間がデジタル資料室であります。

梅田：最後ですけど、ワンストップ・サービスの説明をもう一度お願いします。

ムン・ソンビン先生： ワンストップ・サービスは、利用者が図書館に入れば一か所で本人が望むすべての情報を得ることのできるサービスを言います。前にも述べたように、インフォメーション commons という空間がその役割をしていますが、それはもう少し大きな図書館たとえば国立中央図書館や大学図書館についての概念で、公共図書館は小規模のためにデジタル資料室がその役割をしなくてはならぬと思います。

梅田：「農漁村型図書館」とはどういう図書館のことを意味するのですか。

ムン・ソンビン先生： 農漁村の中には韓国でもかなり立ち遅れた地域が存在し、そこは財政的に予算が不足し、遠く離れていて支援が難しいところを対象にそこの利用者のため支援するように作られた図書館を言います。

中村：時間ももうなくなってしまったのですが、私のイメージでは、韓国はネットカフェがいたるところにあるとかテレビで見たこともあり、ネットが盛んなイメージがあります。お金を払っていくネットカフェと図書館が行う電子情報のサービスがどういうふうに差別化をしていくのかを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はないかと考えさせられました。この後、懇親会がありますので良かったら学生さんも積極的に参加していただき、その場で引き続きお話し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ムン・ソンビン先生：延世大学校は韓国で一番有名な私立大学で、この大学の図書館は大変最新のデジタルライブラリ・コンテンツを入れて作った図書館です。

(動画鑑賞)

ムン・ソンビン先生：以上です。延世大学校のホームページや図書館のホームページでも見られます。

最後に図書館情報学にご関心のある方はいらっしゃいますか、今後図書館で勤務したいとか。

それでは私が発表した内容ですが、韓国では司書という概念よりも、つまり伝統的な図書館教育より電算教育の方が重心になっています。だから皆さんも卒業前に関連科目を多く習得し司書職でも電算職を兼ねる能力こそ身につけてほしいです。また関心のある方や気になるものがあれば連絡下さい。ご返事や紹介できる方などがあれば紹介いたします。また韓国を訪れることがあれば延世大学校にもいらしてください。

私も韓国で日本語を2～3年間、毎朝勉強し、今年慶應大学へ訪問教授として来ることになりました。皆さんも韓国語や英語を勉強して延世大学校へ留学されることもいいと思います。延世大学校の授業は40%が英語で行なわれているので、英語の勉強のためにもいいと思います。そして延世大学校の文献情報学科は韓国一のカリキュラムであるので是非留学されてもいいと思

います。

最後に一言。皆さん「成功」の反対語は何だと思いませんか。多くの人は「失敗」と言うでしょうが、私は「失敗」よりも「諦め（放棄）」だと思います。成功のため努力すれば失敗もあると思いますが、成功しようと努力もしない人は諦めた人です。

ですから皆さん、諦めないで頑張ってください！

宇治郷：今日は長い間、韓国の図書館情報学の最先端の話をお聞かせ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だいろいろ質問したい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が、今日のお話をステップにして日本でも公共図書館、大学図書館でこういうデジタル資料室・情報資料室というものを研究し、どうすれば構築できるかを研究することが必要かと思えます。最後にもう一度拍手をしてお別れにしたいと思います。

(むん そんびん。延世大学校文科大学文献情報学科教授)

(テープ起し：こ よんじん。同志社大学文学研究科博士後期課程2年)